

주요용어 : MBTI 성격유형, 방어기제

##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방어기제의 관계연구\*

황 승 숙\*\* · 김 은 주\*\*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학교교육의 대부분은 지식위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식은 대부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관한 것이며 관심의 대상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해당한다(Seol, 1997).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외적인 객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도 막상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므로 행동의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Lee, 1987). 자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자아수용도, 타인수용도 및 자존감이 높고 인간관계의 오해나 편견을 잘 다룬다고 하였다(Bang, 1998). 이렇듯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습득하는 것은 실제적 자기수준과 자기수준의 불일치수준을 줄이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 자기수용 및 타인수용과 자존감이 향상되어 일관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s)는 Jung의 성격유형 이론을 근거로 Myers와 Briggs가 1941년 이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한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유형검사이다. MBTI의 바탕이 되는 Jung의 성격유형

이론의 요점은 인간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멋대로이고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다르다는 것이다. 이 일관성과 상이성은 개인이 정보를 수집하고(인식과정), 결정을 내리는데(판단과정) 있어서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격유형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인식과 판단의 태도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MBTI는 각 개인이 선호하는 네 가지 심리기능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함으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데 유용한 도구라 할 수 있다.

MBTI는 개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개인의 고유한 장점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격유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며 많이 활용하고 있다. 즉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특정한 성격유형을 가진 개인에게 그 개인의 성격에 적합한 자문과 상담을 피드백 해 줌으로 자신의 긍정적인 성격적 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건강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고 자기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된다(Lee, 1999). 이와 같은 입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이해를 돋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심성훈련 또는 집단상담의 형태로 실시되어왔고 그 효과도 이미 여러 연구에서 증명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 이 연구는 2000년 2학기 교내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조교수, 경인여자대학 간호과

투고일 2001년 11월 12일 심사의뢰일 2002년 4월 22일 심사완료일 2002년 8월 15일

본 연구는 MBTI 집단활동이 여고생의 성격유형별 자아수용도, 타인수용도 및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Bang, 1998), MBTI 성장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잠재적 비행에 미치는 효과(Go, 2000)와 성격유형과 행동특성 비교분석에 따른 인식형 청소년을 위한 MBTI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Kim, 1999), 그리고 MBTI를 활용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공업고등학교 부적응학생의 자아상과 목표관련에 미치는 효과(Lee, 1999)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MBTI를 활용한 대인관계 향상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향상에 미치는 효과(Lee, 1999)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계속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대학생 대상의 MBTI 연구는 드문 실정이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자기이해를 돋고자 하는 성장프로그램 활동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인간의 삶 속에서의 다양한 자극에서 느끼는 성격 충동, 공격적 충동, 적개심, 원한, 좌절등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내적 긴장과 불안이 유발될 때,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책략을 자아방어기제라 한다(Kolb & Brodie, 1982). Jung은 자아방어기제가 인간의 정신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현상의 중요한 특징인 다양성과 비합리성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비판했지만, 자아방어기제는 증상을 해석하는 분석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성격경향, 인격형성, 적응 및 대처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Park, 1991). 스트레스 상황하에서 혹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할 때 자신의 고유행동방식을 아는 것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특유한 행동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행동방식에 대한 지식은 한 개인이 새로운 상황 속에 내던져져 그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야 할 때 스스로 대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또 자신의 문제대처 능력을 파악하는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협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유의 대처방식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가 되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논제가 된다.

사람은 자기本身의 과정에서 자신의 긍정적인 면도 발견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발견하게 된다. 이 경우에 흔히 긍정적인 면은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부정적인 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일부분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이는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외부로 내보이려고 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신뢰로운 인간관계

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Seol, 1997). 그러나 자기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높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에 따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Lee, 1984). 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됨으로 자아수용도가 높을수록 가시적인 행동이 줄어들게 되어 신뢰로운 인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수용을 위해서는 자기자신에 대한 자기각성과 자기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Bibby, 1988).

간호대학생은 MBTI 성장프로그램을 통하여 우선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개인의 심리적 선호경향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자신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은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함으로서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폭을 넓게 할 수 있다. 교수-학생의 상담과정에서 교수가 각각의 학생의 의사소통, 행동양식, 문제대처능력을 이해할 수 있고, 학생은 자신과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각각 학생의 성격유형과 방어기제에 따른 적합한 자문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은 긍정적인 성격특성과 잠재력을 발견함으로서 건강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방어기제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각 성격유형에 적절한 교수방법 개발, 효과적인 상담 그리고, MBTI 성장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자아방어기제와 관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학생상담과 MBTI 성장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한다.
- 2) 간호대학 학생의 MBTI 성격유형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 학생의 방어기제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 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방어기제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간호대학 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EI, SN, TF, JP)와 방어기제의 4가지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와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일개 대학 간호과 학생으로 1학년 76명, 2학년 86명, 3학년 33명으로 총 195명이었다.

### 3. 연구도구

#### 1) 성격유형 측정도구-성인용 MBTI(Myer-Briggs Type Indicator)

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Shim(1990)에 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BTI를 사용하였다. MBTI는 상반된 선호 중에서 한가지 선호를 선택하게 하는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유형지표(Type Indicator)로서 비진단검사이며 선호를 나타내는 지표는 모두 네가지이며 ①외향성(Extraversion)-내향성(Intraversion); EI지표, ②감각(Sensing)-직관(iNtuition); SN지표, ③사고(Thinking)-감정(Feeling); TF지표, ④판단(Judgement)-인식(Perception); JP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MBTI는 자가체점용 GS 형과 컴퓨터 체점용 GA 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GS형을 이용하였다. MBTI의 점수를 통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점수를 연속점수로 수정할수 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E, S, T, J의 선호점수인 경우 연속점수는 100에서 선호점수를 뺀다(100 - 선호점수).

I, N, F, P의 선호점수인 경우 연속점수는 100에다 선호점수를 더한다(100 + 선호점수)(Kim, Shim & Jue, 1995).

위 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EI지표는 .77, SN지표는 .81, TF지표는 .78, JP 지표는 .82로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각각 검증되었으며, 재검사방법으로 검증해 본 결과 EI지표는 .86, SN지표는 .85, TF지표는 .81, JP지표는 .88로 신뢰도가 검증되었다(Kim & Shim, 199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EI지표는 .75, SN지표는 .78, TF지표는 .67, JP지표는 .77이었다.

#### 2) 방어기제 측정검사 - 이화방어기제

간호대학생의 방어기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표준화된 이화방어기제검사를 이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아방어가 개인의 성격과 정신장애,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본요소임을 전제로 우리나라 속담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20개의 하위척도들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문항수는 200개이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Lee, Kim과 Kim, Park(1991)은 20개의 방어기제를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불안정한 방어기제”, “자아확대적 방어기제”, “자아부정적 방어기제”, “현실 회피방어기제”로 명명하였다. “불안정한 방어기제”는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투사, 수동-공격적 행동의 방어기제 하위척도로, “자아확대적 방어기제”는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머, 승화의 방어기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는 반동형성, 허세, 동일시, 퇴행의 방어기제 하위척도로, “현실 회피방어기제”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의 방어기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 이상이며 타당도는 .70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2를 보였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pc-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 성격유형은 실수와 백분율, 방어기제는 평균과 표준편차, 성격유형 지표와 방어기제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확인하였다.

###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0년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자료수집을 위해 MBTI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교수 2인이 1학년 학생 76명, 2학년 학생 86명, 3학년 학생 33명을 임의표집 하였다.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연구참여자에게 이화방어기제의 작성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MBTI 검사는 MMPI 검사(진단검사)와는 달리 비진단 검사이므로 MBTI 검사 결과는 성격의 좋고 나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6가지 성격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되도록 이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직분에 맞춰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응답하도록 하며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으로 응답해서도 안됨을 설명하였다.

2002년 8월

그리고 문항을 선택할 때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경향,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향,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자주 쓰는 경향, 상대적으로 더 쉽게 끌리는 경향을 선택하도록 설명하였다. 자료작성에 대한 설명과 자료측정시간은 90분이었다.

### III. 연구 결과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95명이었으며, 학년별로 2학년 86명(44.1%), 1학년 76명(39.0%), 3학년 33명(16.9%)이었다. 대상자의 종교적 특성으로는 기독교인 학생이 90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타났으며 종교를 가지지 않은 학생 역시 75명(38.5%)으로 나타났다. 형제순위에서는 첫째인 경우가 54.9%로 매우 높았다. 그 외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percent
grade	freshman	76	39.0
	junior	86	44.1
	senior	33	16.9
religion	protestant	90	46.2
	catholic	19	9.7
	buddist	11	5.6
	atheist	75	38.5
birth order	first	107	54.9
	second	51	26.2
	third	25	12.8
	others	9	4.6
parent lived	father death	12	6.2
status	mother death	1	0.5
	divorced	9	4.6
	parent lived	170	87.2

#### 2.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4가지 선호지표

본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총 16가지로 구분되었다<Table 2>. 이러한 유형은 MBTI 척도에 의한 선호도의 점수 평가로 이루어졌다. 성격유형에서 ISTJ 유형이 35명(17.9%)으로 가장 많았으며, ESTJ유형이 33명(16.9%)이었고 ISFJ 유형이 22명(11.3%)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INTJ 유형은 1명(0.5%)이었으며 INTP유형은 한 명도 나타내지 않았다.

성격유형은 4가지 선호지표를 갖는데 이에 따른 대상자의 분류는 <Table 3>과 같다. 즉 외향-내향형(EI)의 지표에서는 외향성(Extraversion)이 113명(57.9%)로 많았으며, 감각-직관형(SN)의 지표에서는 감각형(sensing)이 159명(81.5%)으로 매우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사고-감정형(TF)의 지표에서는 사고형(Thinking)이 106명(54.3%)으로 높았으며 판단-인식(PJ)형의 지표에서는 판단형에 116명(59%)으로 인식형에 비해 많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3> 4 preference patterns on MBTI

index	category	frequency (N)	percent (%)
EI index	Introversion(I)	82	42.1
	Extraversion(E)	113	57.9
SN index	Sensing(S)	159	81.5
	Intuition(N)	36	18.5
TF index	Thinking(T)	106	54.3
	Feeling(F)	88	45.7
JP index	Perception(P)	79	41.0
	Judgement(J)	116	59.0

#### 3. 간호대학생의 방어기제

간호대학생의 방어기제의 사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동일시의 평균점수가 3.27( $\pm 0.39$ )로 가장 높았으며, 역제가 3.25( $\pm 0.44$ ), 유우며 3.24( $\pm 0.51$ )로 높은 평균점을 보였다. 이에 비해 행동화 2.36( $\pm 0.58$ )로 가장 낮은 평균점을 보였고 투사가 2.51( $\pm$

<Table 2> Personality type of subject by MBTI

No.	type	frequency	percent	No.	type	frequency	percent
1	ISTJ	35	17.9	9	INFJ	2	1.0
2	ISTP	9	4.6	10	INFP	5	2.6
3	ESTP	16	8.2	11	ENFP	13	6.7
4	ESTJ	33	16.9	12	ENFJ	4	2.1
5	ISFJ	22	11.3	13	INTJ	1	0.5
6	ISFP	10	5.1	14	INTP	0	0
7	ESFP	19	9.7	15	ENTP	8	4.1
8	ESFJ	16	8.2	16	ENTJ	2	1.0

&lt;Table 4&gt; Defense mechanism of subject N=195

	Mean	Std. Devi.	Min	Max
Bragging	2.82	0.49	1.50	4.50
Reaction formation	3.06	0.42	2.10	4.20
Identification	3.27	0.39	2.30	4.50
Passive Aggressive	2.53	0.45	1.50	4.10
Displacement	2.59	0.47	1.20	4.00
Denial	2.58	0.37	1.40	3.60
Controlling	3.06	0.41	2.20	4.50
Suppression	3.25	0.45	2.10	4.50
Distortion	2.92	0.43	1.70	4.00
Anticipation	3.03	0.54	1.30	4.40
Rationalization	3.07	0.39	1.90	4.30
Dissociation	2.94	0.55	1.40	4.40
Somatization	2.78	0.67	1.20	4.50
Sublimation	2.82	0.48	1.70	4.80
Acting out	2.36	0.58	1.20	4.50
Altruism	3.18	0.51	1.50	4.70
Regression	3.18	0.48	1.70	4.60
Humor	3.24	0.51	2.10	4.90
Evasion	2.73	0.45	1.30	4.20
Projection	2.51	0.45	1.20	3.80

0.45), 부정 2.57( $\pm 0.37$ )로 낮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Table 4>.

#### 4.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와 방어기제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와 방어기제의 상관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4가지 지표를 연속점수화 하였으며, 이러한 지표를 EI지표, SN지표, TF지표, JP지표라고 하였으며 상관관계를 검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I지표와 관계가 있는 방어기제는 7가지였으며, 통제와의 상관관계 점수는 (-.437\*\*), 이었으며 왜곡은 (-.307\*\*), 승화가(-.295\*\*), 이타주의가(-.282\*\*), 유머가(-.488\*\*)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extraversion)의 선호경향과 위의 방어기제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회피(.280\*\*), 투사(.199\*\*)의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내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SN지표와 관계가 있는 방어기제는 6가지였으며 이중 반동형성(.180\*), 수동-공격적 행동(.234\*\*), 통제 (.168\*), 행동화(.168\*), 유우머(.256\*\*) 5가지 방어기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직관(intuition)형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견(-.253\*\*)은 감각(sensing)형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F지표와 관계가 있는 방어기제는 2가지였으며, 이 중 예견(-.267\*\*)은 사고형의 경향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타주의(.161\*\*)는 감정형의 선호경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JP지표와 관계가 있는 방어기제는 12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반동형성(.260\*\*), 동일시(.176\*), 수동-공격적 행동(.407\*\*), 해리(.188\*), 행동화(.367\*\*), 회피(.340\*\*), 유머(.275\*\*), 회피(.192\*) 및 투사 (.222\*\*)의 방어기제는 인식형일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억제(-.224\*\*), 예견(-.617\*\*), 합리화(-.190\*)의 방어기제는 판단형일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방어기제의 4가지 요인과 MBTI 4가지 선호지표와의 관계

이화방어기제를 Lee 등(1991)의 연구에서 4가지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불안정한 방어기제”, “자아확대적 방어기제”, “자아부정적 방어기제”, “현실 회피방어기제”의 분류체계와 MBTI 선호지표와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불안정한 방어기제’는 JP지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02년 8월

<Table 5> Correlation between defensive mechanism and 4 preference patterns on MBTI

				N=195
	EI index	SN index	TF index	JP index
Bragging	-.078	-.064	-.083	.135
Reaction formation	-.034	.180*	.079	.260**
Identification	-.062	.068	.131	.176*
Passive Aggressive	.099	.234**	.023	.407**
Displacement	.064	.018	.114	.139
Denial	-.016	.082	.018	.134
Controlling	-.437**	.168*	-.002	.150*
Suppression	-.035	-.063	-.135	-.224**
Distortion	-.307**	.091	-.108	-.041
Anticipation	-.038	-.253**	-.267**	-.617**
Rationalization	-.090	-.061	-.158*	-.190*
Dissociation	.126	.037	.053	.188*
Somatization	.079	-.014	-.055	.071
Sublimation	-.295**	.113	-.012	-.088
Acting out	-.025	.168*	.047	.367**
Altruism	-.282**	.098	.161*	-.120
Regression	.041	.070	.089	.340**
Humor	-.488**	.256**	.128	.275**
Evasion	.280**	.062	.050	.192*
Projection	.199*	-.041	-.040	.22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 tailed).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 tailed).

<Table 6> Correlation between 4 preference patterns on MBTI and defensive mechanism

				N=195
factor index	unstable sensitization	ego-expansive	ego-denial	reality evasive
EI index	.109	-.519**	-.047	.036
SN index	.071	.207**	.070	-.100
TF index	.012	.059	.076	-.200**
JP index	.216**	.048	.306**	-.30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인식형의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확대적 방어기제’는 EI지표와 SN지표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 경향이 높을수록, 직관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는 JP지표와 관계가 있었으며 인식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회피방어기제는 TF지표, JP지표가 관계가 높았으며 사고형 경향이 높을수록, 판단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 의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 중에서는 ISTJ유형이 가장 많았고(17.9%) ESTJ, ISFJ, ESFP, ESFJ와 ESTP

유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STJ유형은 대체적으로 신중하고 조용하며 집중력이 강하고 폐사에 철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만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려고 하며 책임감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Myers & McCaulley, 1995). 또한 ESTJ 유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며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나 필요할 때 응용할 줄 안다(Myers & McCaulley, 1995)라고 하였다. Kim(1998)은 MBTI의 성격유형과 청소년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에서 ISTJ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ISTJ 유형이 국내에서 가장 많다(Kim et al., 1995)는 보고를 확인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두 유형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어서 전공학습이나 실습을 통한 교육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업중퇴

나 학업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유형들로는 ISTP, ESTP, ISFP, ENTP 가 많다고 보고(Uslianer, 1990; Provost, 1985)하였고, Kim(1999)은 교우관계에서는 ESTP가 가장 잘 적응하였고, 그 다음은 ESTJ, ESFP, ENFP 순으로 적응을 잘 하였다. 그리고 학업관계에서는 ESTJ와 ISTJ가 가장 잘 적응하였고, 그 다음은 ISFJ, ESTP, ISTP순으로 적응을 잘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과 학생들은 학업의 진행과 적응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동일시"였고, 그 다음은 "억제", "유머"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91)은 방어기제를 개인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식, 무의식 수준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의 문제와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방어기제는 적응파도 연결되므로 더욱 관심거리가 되며,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트레스 극복에 필요한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Kang, 1999). 방어기제의 하위척도 중 "동일시"는 존경하는 대상의 힘을 내면화하기 위해 그 대상의 특징, 행동, 가치관을 모방하거나 대상과의 이별상황에서 대상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별의 현실을 방어하고, 공격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공격적 정서에 대한 두려움을 방어 할 수 있게 한다(Lee et al., 1991). "억제"는 현재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갈등이나 욕구에 대해 일단 관심을 보류하고 문제해결을 지연시킨다. "유머"는 유머러스한 감정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자신도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갈등이나 좌절에 대처해 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Park(1991)은 한국인의 자아방어기제 특징을 알아보고자 일반성인 1320명에 대한 이화방어검사 및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는데 남자는 통제, 이타주의의 방어기제가 더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동일시, 전치, 해리, 신체화, 회피의 방어기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회행, 해세,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적 행동, 투사, 전치, 해리, 유머, 승화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진 척도는 예견, 합리화, 이타주의, 부정, 억제, 회피, 신체화, 통제 등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인 "동일시"의 방어기제를 높게 사용하는 것은 Park(1991)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방어기제를 요인으로 분류함에 따라 사람들이 어느 방어기제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 성숙정도를 평가할 수 있겠다.

성격유형의 4가지 지표의 빈도 및 방어기제와 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의 집중과 에너지 방향이 인간의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향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는 첫째 지표인 외향성(E)과 내향성(I)의 경우 외향성(E)이 57.9%로 조금 많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99) 연구 도 외향성(E)이 60%로 내향성(I)보다 높은 비율임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Kim(1998)은 외향성(E)이 교우 관계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외향성이 사교성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적응을 쉽게 하는 경향성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외향성(E)인 경우는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인식과 판단도 사람과 대상 등 외부 세계와 외부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내향성(I)인 사람은 주의 집중을 내부로 향하고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고 개인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어하며 소수와 깊은 인간관계를 가진다. 이들은 먼저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에 옮기므로 실수가 적다(Kim et al., 1995). 이러한 지표와 관계가 있었던 방어기제는 외향성인 경우 통제, 왜곡, 승화, 이타주의, 유우며의 방어기제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향성인 경우는 회피, 투사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우며, 승화의 방어기제는 Lee 등(1991)의 요인분석 결과, '자아확대적 방어기제'의 속성에 속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방어기제의 특징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타인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유익하고 갈등이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조정되게 해준다. 즉 긍정적인 자아상, 적극적인 방식, 결과적인 유익성(Lee et al., 1991)의 특징은 외향성의 특성 중에서 외부세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증대하고 싶어하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표현방법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특성과 상통하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내향성인 경우,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책임을 자신으로부터 외부 대상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요구를 객관화시키거나 현실을 왜곡하여 남에게 그 뒷을 들림으로서 자아를 보호하는 기전인 투사(Kim, 1994), 현실을 직면하지 않으려 하면서 왜곡시키거나 피해버림으로써 역시 행동으로 나타남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회피(Park, 1991)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향성의 자기 자신 안으로 몰입하는 성격이나 외부사건보다는 지속적

인 개념을 더 신뢰하고 사려 깊고 주위와 떨어져 고독과 사생활을 즐기는 성향을 표현하는 결과로 고려되어진다.

두 번째 지표인 감각(S)과 직관(N)으로 정보수집 방법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 감각형이 81.5%로 매우 높은 비도를 보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도 감각형(S)이 86%로 직관형(N)보다 높은 비율임을 보고하고 있다. 감각형인 경우 이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는 예견이었으며, 직관형인 경우는 반동형성, 수동-공격적 행동, 통제, 행동화, 유머로 나타났다. 예견은 행동에 앞서 미리 상황을 점검, 확인하는 것이다. 감각형은 오감을 사용하여 파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으로 현실적이며 사실에 바탕을 두고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어기제로 보여진다. 이에 비해 직관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나타내는 반동형성이나, 수동-공격적 행동으로 공격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수동적인 저항행동, 불안을 덜고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변에 있는 대상이나 사건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통제, 행동화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 욕구나 소망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충족시키는 충동적인 수준의 행동화 등이 직관형 경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머러스한 감정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자신도 불편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갈등이나 좌절에 대처해 나가는 방어기제인 유머와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관형의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 예감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소중히 하며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보여진다.

세 번째 지표는 판단과 결정 기능으로 사고와 감정 기능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 결과, 사고형은 54.3%로 약간 많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도 사고형(T)이 76%로 감정형(F)보다 높은 비율임을 보고하고 있다. Kim(1998)은 어느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고형(T)이 학업관계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은 사고와 논리를 가르치고 평가하는 교과과정의 특성이 사고형(T)이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사고기능(T)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관심의 주체가 사실, 진실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정보를 분석 비교하여 결론에 다다른다. 이들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중시하며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결정한다. 감정기능(F)은 사람관계에 관심을 가지며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어떤 가

치를 느끼고 자기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중요시한다(Shim & Kim, 1997). 사고형의 경우 정보분석비교를 통한 예측을 선호하는 그들의 경향을 잘 표현하는 방어기제인 예견과 관계가 높았으며, 반면에 감정형은 인간관계 및 감정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타주의 즉 타인에게 봉사함으로 개인적인 만족감을 얻고 충족적인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려는 그들의 성향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지표는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태도를 알려주는 판단과 인식 기능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들 중에서는 판단형 59.0%로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1999)의 연구도 인식형(P)이 68%로 판단형(J)보다 높은 비율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와 달리 Lee(1999) 연구의 대상자가 학교교육을 위반하여 경계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중도 탈학한 뒤에게 입학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라는데 그 변수가 있다고 본다. Kim(1999)에 의해 비행 청소년 내에서도 인식형(P)은 판단형(J)에 비해서 비행의 정도 뿐 아니라 일반 생활이나 정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하게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어 비행 청소년들의 인식형은 판단형과는 매우 다른 성질의 집단임을 보고하였다. 인식형(P)의 부정적인 속성을 보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판단기능(J)을 선호하는 사람은 인식기능 보다 판단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생활을 조절하고 통제하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인식기능(P)을 선호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추어 적응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Kim et al., 1995). 인식형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로는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적 행동, 해리, 행동화, 퇴행, 유우며, 회피 및 투사였으며, 판단형은 억제, 예전, 합리화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형 성향과 관계가 깊었던 반동형성, 해리, 동일시, 퇴행의 공통점은 표면적인 수준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자아 현실보다 우월한 특성이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경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Lee et al., 1991). Tobacyk, Wells와 Springer(1988)의 학교탈락의 위험도가 높은 중학생들의 성격 유형과 자아개념의 조사결과, 내향형보다 외향형이, 사고형보다 감정형이, 인식형보다 판단형이 더 자아개념이 높았다. 즉 인식형(P)은 판단형(J)에 비해 비행의 정도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이나 정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하게 부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Shim & Kim, 1997). 이러한 결과와 분석들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판단-인식형의 척도와 방어기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라고 사료된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동기화 된, 지각된 위협에 대한 불수의적인 반응으로, 이 반응들은 생각이나 정서를 포함한 정신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Kim, 1994).

방어기제의 4가지 요인과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불안정한 방어기제' 해당되는 방어기제는 행동화, 전치, 신체화, 해리, 수동-공격적 행동이었으며 이 방어기제들은 정서적 불안정상태이나 민감성을 내포하고 있다(Lee et al., 1991)고 하였다. 이 요인은 JP지표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인식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결상태인, 융통성인, 목적과 방향이 변화할 수 있는 인식형인 경우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식형 경향을 보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숙한 방어기제 개발을 위한 상담기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확대적 방어기제'는 통제, 왜곡, 이타주의, 유머, 승화 등이 포함되며 이들의 특징은 갈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거나 타인을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유익하고 갈등이 보다 성숙한 수준에서 조정해준다. 이 요인과는 EI지표와 SN지표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 경향이 높을수록, 직관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는 빈동형성, 혀세, 동일시, 폐행이 포함되며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이 용이하지 않지만 개인이 자신의 자아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를 부정하면서 개인의 자아현실보다 우월한 특성이나 행동을 겉으로 드러내는 경향성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기제의 기저에는 이상적인 수준에 대한 비현실적인 강렬한 욕구가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요인과는 JP지표와 관계가 있었으며 인식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회피방어기제'는 TF지표, JP지표가 관계가 높았으며 사고형 경향이 높을수록, 판단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에 해당되는 방어기제는 부정, 합리화, 억제, 예견, 회피이며 이 가운데서 억제는 행동을 지연시키고 결정을 유보시킨 상태이며 예견은 행동에 앞서 미리 상황을 점검하거나 검토하는 상태이다. 즉 행동 억제 또는 행동지연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성격유형의 차별화에 따

라 활용하는 방어기제의 유형에 역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전제조건은 개인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는 해결방법 역시 차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건강한 자아의식을 힘양할 수 있도록 상담방향을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의 성격유형과 방어기제의 관련성은 인식-판단형 척도와 방어기제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식형 간호대학생일수록 방어기제를 "불안정한 방어기제",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교수들은 학생의 개별적인 성격유형에 맞는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학생의 의사소통, 행동양식, 문제대처능력, 방어기제 등을 미리 이해하여 교수-학생의 상담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교수 대상의 학생 성격유형에 따른 차별화 된 교수방법-상담기법 프로그램의 탄생개발을 원하며 학생을 대상으로 한 MBTI 성장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바란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MBTI성격유형과 방어기제와 관계를 파악하여 앞으로 효과적인 학생상담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간호과 학생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2000년 1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자료가 수집되었는데, 본 연구자가 모든 대상자에게 MBTI 검사 실시 전 Orientation 후 MBTI 검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 학생의 성격유형: 성격유형에서 ISTJ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ESTJ유형, ISFJ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의 4가지 하위지표는 외향-내향형 (ED)은 외향성(E)이 많았으며, 감각-직관형(SN)은 감각형(S)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고-감정형(TF)은 사고형(T)이 높았으며 판단-인식형(PJ)은 판단형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2. 간호대학 학생의 방어기제: 동일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억제, 유우며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다.
3. 간호대학 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와 방어기제

- 의 상관관계: 외향성(extraversion)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통제, 왜곡, 승화, 이타주의, 유머 방어기제를, 내향성일수록 회피, 투사의 방어기제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관형(intuition)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반동형성, 수동-공격적 행동, 통제, 행동화, 유머의 방어기제를, 현실형(sensing)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예전의 방어기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고형(thinking)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예견을, 감정형(feeling)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이타주의의 방어기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식형(perceive)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반동형성, 동일시, 수동-공격적 행동, 해리, 행동화, 퇴행, 유머, 회피 및 투사의 방어기제를, 판단형(judgement)의 선호도가 높을수록 억제, 예견, 합리화의 방어기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4. 간호대학 학생의 MBTI 4가지 선호지표와 방어기제 4요인의 상관관계: '불안정한 방어기제'는 인식형의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학대적 방어기제'는 외향성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직관형 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부정적 방어기제'는 인식형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 회피방어기제'는 사고형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판단형 선호경향이 높을수록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별 지표와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좀더 심화된 기질(SJ, SP, NF, NT) 특성과 방어기제에 대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MBTI 성장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MBTI 성격유형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상담방법 개발을 제언한다. 학습동기에 있어서 각 유형마다의 개인 차를 발견할 수 있어, 각각의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을 개발 할 수 있게 하고, 교수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상담지도방법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References

- Bang, H. G. (1998). *The effects of MBTI Group actional on the degree of self-other acceptances and the growth of self-esteem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a, Busan.
- Bibby, C. J. (1988). *The effect of self-acceptance train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in minority high school yout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Go, K. O. (2000). *The effect of MBTI improvement program on the adolescent's latent delinquenc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 Gou, S. K. (1994). *The relationship of potential misdeed tendency and personality type on MBT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u-san, Busan.
- Kang, I. S. (1999). *A study on a factor of stress of teenagers and relation to defense mechanis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 Kim, S. Y. (1998).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s on MBTI and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Kim, J. N.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type and defense Mecha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J. E., Lee, K. H., Kim, J. G., Park, Y. S. (1991). *The inspection outline of cross-defense mechanism*, *Journal of Ha-na medical*.
- Kim, J. T., Shim, H. S. (1990). *A study about Korea standardization of MBTI*,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Counsel and Psychological Cure*, 3(1), 44-72.
- Kim, M. K. (1999). *Development and effect of MBTI psychoeducation program for the perceiving type adolescent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Graduate School,

- Pusan National University.
- Kim, J. T., Shim, H. S., Jue, S. B. (1995). *MBTI development and application*, Korea psychological testing institute.
- Kolb, L. C., & Brodie, H. K. (1982).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Saunders, Philadelphia
- Lee, K. H. (1987). *Study of group counselling activity for problem behavior control of women's high school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Lee, K. R. (1999). *The effect of self-growth program using on the MBTI about self image and management of maladjustment technical高中生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illa University.
- Lee, S. L. (1999)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s improv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improvement through MBTI*.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eimyung University
- Lee, K. R. (1999). *The effect of self-growth program using the MBTI about self image and goal management of maladjustment technical高中生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illa University.
- Lee, H. D. (1984). *Theoretical approach of counselling*. seoul : HungSul publishing company.
- Lee, K. H., Kim, J. E., Kim, J. K., Park, Y. S. (1991) A Standardization study of EWHA defense mechanism test(EDMT),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Vol 30, No 3, 582-592.
- Lee, S. L. (1999). *The effect of the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relationships improvement through MBT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Keimyung, Daegu
- Lee, K. H., Park, Y. S. (1990). The past Korean self-defense mechanism in the old saying, *Neuropsychiatry*, 29(3), 721-732.
- Myers, I., & McCaully, M. (199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BTI*(Kim, J. T., Shim, H. S., Jae, S. B. translate), Korean Psychological Lab, seoul.
- Provost, J. A. (1985). "Type Waching" and college attrition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9, 16-23.
- Park, K. H. (1991). *A study the self-defense mechanism of Korea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hwa womens, seoul.
- Seol, G. M. (1997). *Human being relation and mental health*, Seoul, Hakjisa.
- Shim, H. S., Kim, M. K. (1997). MBTI growth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 verification for a juvenile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4, 52-78.
- Tobacyk, J., Wells, D., Springer, T. (1998). Jungian type and self-concept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at high risk for dropout, *Journal of Psychological Type*, 16, 47-53.
- Uslaner, M. (1990). *The combined use of MBTI*, Ball State University.
- Valli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adaptive ego mechanism, *Arch Gen Psychiat*, 25, 107-118.

- Abstract -

A Study on MBTI Personality Type and Defense Mechan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

Hwang, Seung-Sook\*\* · Kim, Eun-Joo\*\*

Purpos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useful insight for developing effective teaching and student counseling methods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 This research was funded by Kyungin Women's College in 2000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Kyungin Women's College

between four preference patterns of MBTI personality types and EWHA defense mechanism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Method:** The data used in this research were collected administrating EWHA defense mechanism test and MBTI personality type instrument to 195 nursing students in the period of November 3 through September 16 in 2000.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by pc-SPSS 10.0.

**Result:** Three general conclusions were drawn from the study results: (1) in terms of personality type, 'Extraversion', 'Sensing', 'Thinking', and 'Judgement' types showed high frequency respectively; (2) in terms of defense mechanism, 'Identification' showed the highest score, and then 'suppression' scored next followed by 'Humor'. However, 'Acting out' showed the lowest average score, and then 'Projection' followed by 'Denial'; (3)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mechanism

and four MBTI preference patterns, it can be drawn that students with the preference of 'Extraversion' usually use defense mechanism of 'Altruism', 'Sublimation', 'Distortion', 'Controlling', and 'Humor'. In comparison, students with the preference of 'Introversion' often use the defence mechanism of 'Evasion' and 'Projection'.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can be utilized in both fields of education and counseling: (1)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can provide a basis for developing a suitable teaching method for each personality types of nursing students; (2) for counseling practition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the useful insights to understand nursing college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behavior patterns, and ability of coping with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unseling.

**Key words :** MBTI personality types, Defense Mechanism